

남아공의 FTA 추진동향 및 시사점

2005. 12. 6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parkyh@kiep.go.kr]

주요 내용

최근 들어 남아공은 아프리카 역내국가간 자유무역 단계를 뛰어넘어 역외국으로 FTA 대상을 다 변화하고 있다. 2000년 1월 EU와의 FTA 발효에 이어 최근에는 EFTA와의 FTA 협상도 타결되어 내년 중순경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논의도 재개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와의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남아공과의 FTA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과의 FTA 체결은 남아공 자체시장 확보는 물론이고 사하라이 남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한-남아공 교역은 전형적인 남북 교역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 남아공의 FTA 추진 동향

- 남아공은 세계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이고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9월에는 남아공의 주도하에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역내 FTA 체결을 위한 FTA 의정서(protocol)를 체결하였는데 2012년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아공을 비롯하여 남부아프리카 14개국으로 구성된 SADC는 아프리카 경제블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역내 경제규모와 수출의 70% 이상을 남아공이 차지하고 있음.
- EU와는 지난 1995년 6월 협상을 시작하여 1999년 11월에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2000년 1월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음.
 - TDCA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무역개발협력협정으로, 남아공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능력배양 및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음.
 - EU는 남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화 추진시기 및 자유화 품목 등에 대해 남아공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음.
- 남아공은 2000년부터 12년 내에 EU 상품의 86%를, 그리고 EU는 10년 내에 남아공 상품의 95%를 수입자유화하기로 하였음.
 - EU의 입장에서 볼 때 남아공과의 TDCA 체결은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신흥경제국인 남아공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남아공은 1994년 만델라 흑인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최대 경제파트너인 EU와의 실질적인 협력강화가 절실했음.
- EFTA(유럽자유무역지역: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와는 2003년 초 협상논의가 시작된 이래 2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2005년 8월 FTA 협상타결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7월경 정식 발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남아공을 비롯한 SACU 회원국들은 공산품 및 수산물 등을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대 EFTA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 SACU는 1969년 12월 창설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5개국이며, 관세 풀(pool)제도에 따라 관세수입을 국가별 배분하고 있음.

- SACU-EFTA FTA에서는 보통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일반 FTA 형태와는 달리 다소 예외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였는데, 남아공 의류업체들은 제3국으로부터 직물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EFTA 시장에 수출하더라도 남아공산 제품으로 인정 받게 됨.
-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논의도 다시 재개되고 있음.
- 미국과의 FTA 논의는 지난 2003년 6월 개시되었으나 노동문제에서부터 환경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교역, 투자, 정부조달, 흑인기업우대정책(BEE)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커다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협상자체가 중단되기도 하였음.
- 현재 SACU 회원국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대미 상품수출에 있어 90%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관세인하보다는 투자 및 서비스교역분야에 있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FTA 협상타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SACU-미국 FTA 추진은 지난 2000년 남아공-EU FTA 체결로 미국의 남아공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정부에서 협정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아공 입장에서는 AGOA법의 만료에 대비한 FTA 체결이 필요한 상황임.
- AGOA는 일종의 미국의 개발지원정책으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섬유 등 일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등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1> 남아공의 FTA 추진 동향

대상국	주요 내용 및 특징
SADC	· 남아공의 주도하에 SADC 역내 FTA 추진 ·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Protocol) 체결(2000년 9월) · 2012년 FTA 출범 목표 · 회원국: SACU 5개국을 포함한 14개국
EU	· TDCA 협정발효(2000년 1월) · 2000년부터 12년간에 걸쳐 점진적인 시장개방 · EU는 10년 내에 남아공 수출품의 95%에 대해 관세철폐 · 남아공은 12년 내에 EU 수출품의 86%에 대해 관세철폐 · EU는 남아공 최대의 교역파트너(남아공 전체교역의 38.5%)
EFTA	· FTA 협상타결(2005년 8월) · 2006년 7월경 발효 예정

	· SACU 회원국 공산품 및 수산물의 무관세·무쿼터 수출가능 · 원산지규정의 완화
미국	· FTA 논의 개시(2003년 6월) · 지적재산권, 서비스교역, 정부조달, 흑인기업우대정책(BEE)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난항 지속 · 현재 SACU 회원국은 미국의 AGOA법에 따라 대미 수출의 90%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MERCOSUR	· 특혜무역협정(PTA) 체결(2004년 12월) ·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진행 중 · 주요 현안은 원산지 규정
중국·인도·일본	· 논의 초기단계 · 중국: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에 대한 우려 · 일본: FTA 연구팀 발족합의
기타	·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터키, 이집트 등

-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슷한 경제구조를 지닌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도 추진되고 있음.
- 2004년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이를 FTA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논의 시작단계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내용은 없으나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인도와의 FTA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FTA 체결시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시장침투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FTA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일본과는 금년 7월 양국 관계장관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FTA 연구팀을 발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의 남아공 수출규모는 29억 달러로 한국의 남아공 수출의 3배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대 남아공 수입규모는 46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남아공의 FTA 추진 배경 및 요인

- 이처럼 최근 들어 남아공이 아프리카 역내국가간 자유무역 단계를 뛰어넘어 역외국으로 FTA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배경에는 EU와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나름대로 FTA 체결시 자국에 미치는 이해득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남아공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개방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대륙의 경제부흥의 리더로서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을 경험한 바 있는 남아공은 현재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는 물론 지역차원의 FTA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통상전략임.
- 남아공은 딜레마에 빠진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실감하고 아프리카 역내협력은 물론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에 따라 남아공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FTA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FTA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음.
- 나아가 남아공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아프리카 경제리더로서 자국의 위상을 보다 제고시키고 침체된 산업발전을 모색하고자하는 전략이 내재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아프리카를 본격적인 무역 및 투자협력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아공과의 FTA가 자리 잡고 있음.
- 남아공은 SACU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FTA 체결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고 있어 남아공이 FTA 체결을 사실상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3. 결론 및 시사점

- 남아공의 경제력은 아프리카대륙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미 상무성은 이미 지난 1994년 세계 10대 거대 신흥시장국(BEMs)에 남아공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들 역시 각종 통계자료에서 남아공을 개도국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30%, 그것도 사하라이남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절반 가까이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보면 1만 불을 상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남아공은 아프리카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의 대외교역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음.
-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통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아공과의 FTA 체결은 남아공 자체시장 확보는 물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연결고리로서도 그 기능을 담당할 것임.
-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틀은 한-남아공 FTA 체결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갈 수 있는 협력메카니즘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남아공과의 FTA라고 할 수 있음.
- 한-남아공 교역은 전형적인 남북교역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남아공은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원자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 만큼 FTA 체결에 따른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남아공은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합관계에 놓일만한 상품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교역구조를 보면, 광산물 등의 일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기계류 등의 자본재와 수송장비, 화학제품, 가전제품 등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남북교역 형태를 띠고 있음.

<표-2>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공

FTA 대상국으로서의 선정기준	주요 특징
시장규모(무역 및 투자시장)	-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 - 신흥경제국으로 분류 - 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4 차지 - 한국의 수출: 10억불(2004년) 기록
산업간 상호보완성	- 매우 높음(공산품 수출, 원자재 수입) - 수직적(vertical) FTA
정치적 안정성	- 정치적 안정성 높음 - 다만, 범죄 등 치안문제는 상존
거점지역으로의 활용	- 아프리카국가 중 가장 높음 -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 역내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역협정 체결의지	- 한국과의 FTA에 관심표명 - 공동연구에 대한 필요성 언급 -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SACU 회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남아공은 BRICs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유럽 등 선진국의 시장지배로,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일정규모 이상 확대되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시장임.
 - 그러나 남아공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도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공업화도 나름대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남아공과의 FTA 체결은 아프리카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한-남아공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은 남아공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근국가들,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에게까지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그 과정도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산업보완성과 지역거점을 활용할 수 있는 한-남아공 FTA와 같은 소규모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